

사망자만 늘어나 비통·침울... 잠수사 투입에 '한 가닥 희망'



“힘내세요”
21일 세월호 침몰 실종자 가족들이 머물고 있는 진도 실내체육관에서 자원봉사자들이 가족들에게 떡을 나눠주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사고 6일째 진도체육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여섯째를 맞고 있으나 가족들은 마지막 끈을 놓지 않은 채 생존자가 구조되기를 바라고 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생존 마지막 노선이 점차 다가고 있는 가운데 21일 사고 해역에서는 모처럼 조류가 느려지고 수위가 낮아지면서 수색작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실종자들이 몰려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식당간 등에 잠수요원들도 본격 투입되면서 가족들은 여기에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있다. 그러나 바라는 '구조' 소식은 여전히 들려오지 않는 가운데 실종자 가족들이 구조 후 선체 인양과 함께 24일까지 구조 및 수습을 마무리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애터는 실종자 가족들=갈수록 생존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진도체육관과 팽목항에서 '구조 소식'만을 애타게 기다리던 가족들이 서서히 지쳐가고 있었다. 체육관 내 가족들은 21일 오후 시간에도 대부분 누운 상태에서 TV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었다. 일부 가족들은 신원미확인자의 신상이 적힌 메모를 바라보거나 팽목항으로 향하는 버

가족들 “24일까지 구조·시신 수습 마쳐달라”

정치인 등 발길 뚝...전국 각지에서 구호물품

스를 기다리며 멈추지 않는 눈물을 흘치기도 했다.

지난 16일 사고 이후 진도를 찾은 자원봉사자들도 숙연한 분위기에서 가족들을 돌고 있다. 광주에서 온 박모(30)씨는 “집에 있을 수 없어 지난 20일 내려왔다”며 “당분간 실종자 가족들을 뒷바라지 할 것”이라고 눈시울을 붉혔다.

팽목항에 나가 있는 가족들 역시 답답하기는 마찬가지. 사고 현장 쪽을 바라보는 가족들은 한 가닥 기쁜 소식을 기다리고 있으나, 사망자만 늘어나면서 망연자실해 하고 있다.

◇생존 갈수록 희망-가족 24일까지 구조·수습 요구=실종자 구조와 수색의 성과가 미흡한 가운데 생존자가 아닌 사망자만 계속 늘면서 가족들의 불안은 극에 달하고 있다. 사망자 수는 이미 60명을 넘어섰다.

법정부사고대책본부는 최대한 잠수부들을 투입해 승객 다수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는 다인 격실을 우선 수색하고 선내 수색범위도 4차례 정조시간과 관계없이 넓혀 구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책본부의 말을 믿고 기다리기에 시간은 너무 촉박하다는 게 가족들의 입장이다.

세월호는 현재 선체 우현 옆면이 하늘을 향하고 있고 좌현은 펄 속에 가라앉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체가 가라앉고 있다는 것은 선체 내 에어포켓이 사라지고 있으며, 그만큼 생존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실종자 가족 대표단은 이날 오후 2시 진도체육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법정부 사고 대책본부에 이번 주 수요일과 목요일(4월 23일~24일)까지 생존자 확인과 시신 수습을 마쳐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15명으

로 구성된 대표단은 “물의 흐름이 점차 느려지는 조금 때(22일)에 맞춰 마무리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호물품만 가득-정치인·고위공무원 등 발길 뚝=정치인과 고위공무원들의 실연과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연일 문제가 되면서 진도체육관과 팽목항을 찾는 이들의 발길이 현저히 줄고 있다.

한편 전국 각지에서 답지한 구호물품, 약품, 식료품 등이 체육관 여기저기에 쌓여 있으나 정작 이를 찾는 사람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자원봉사자, 취재기자, 각급 지원기관 관계자 등 1000여명이 진도체육관 내외에 상주하고 있으나 구호물품에는 거의 손을 대지 않고 있다는 것.

식료품을 나눠주고 있던 정모(여·54)씨는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니면 안 가져가는 것 같다”며 “실종자 가족들의 심정을 되도록 이해하고 차분한 분위기에서 구조 소식을 기다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21일 오후 8시 현재 세월호 탑승자 476명 중 사망자는 65명, 구조자 174명, 실종자는 237명으로 집계됐다.

/윤현석기자 chadod@kwangju.co.kr /진도=박현영기자 hyppark@kwangju.co.kr

진도 어민들 표정

“학생들 눈에 밝혀 죄스러워...” 멈춰버린 ‘생업 시계’

“어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학생들이 눈에 밝혀 이제는 바다에 나가는 것도 죄스럽게 느껴져요.”

전국 꽃게 생산량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진도의 서남향 인근에서는 지난 15일 까지만 해도 제철 꽃게를 손질하거나 미역을 다듬는 어민과 아나네들로 붐볐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이후 한창 진도와 조도의 ‘시계’도 멈춰버렸다.

서남향에 거주하는 70대 한 할머니는 “군청 직원들이 보기에 그렇다고 해서 건조장 한 쪽을 빌려 미역을 다듬고 있다”며 “불편이야 감수할 수 있지만 손자, 손녀 같은 아이들 불쌍해서 어찌나”고 한숨을 쉬었다.

미역을 따서 생계를 잇고 있는 할머니들은 “바다에 나갈 때마다 이번 참사가 생각날 것 같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구조·수습이 장기화되면서 인근 어민들의 피해도 누적되고 있었다. 세월호에서 유출된 기름이 가장 걱정이라는 진도군 수협 최정태 상무는 “서남향 꽃게를 사기 위해 주말이면

200~300명의 관광객들이 줄을 섰다”며 “하지만 지금은 구조가 우선이라 아무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바다를 떠진 삼아 40년 넘게 진도 수역을 주름잡았던 50대 선장에게도 이번 참사는 충격 그 자체였다.

강찬영(56) 행복호 선장은 “내 딸이 중학교 3학년인데, 자식 같은 아이들이 이런 변을 겪어 안타깝다”며 “생업에 타격은 크지만 아이들이 가족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급선무”라고 눈을 감았다.

강 선장은 침몰 현장에 구조 선박, 해경이나 군함 등이 몰려 들면서 21일 조업을 포기했다. 주로 우럭이나 장어를 침몰사고 현장에서 잡았던 그는 “내일 다른 곳으로 나가 작업을 해야겠다”며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

서남향 인근 어민들은 4~5월 우럭, 장어, 꽃게 등을 잡고 있다. 이맘때가 되면 신안, 여수, 완도 등 각 지역에서 어선들이 몰려와 새벽 6시부터 조업을 나서며 장사진을 이뤘지만, 참사 후에는 외부에서 단 1척도 오지 않았다. 주민들 역시 꽃



21일 오후 진도 동거처도 인근에서 가져온 미역을 말리고 있는 서남향을 할머니들. 주로 팽목항에서 미역을 다듬었던 이들 할머니에게도 이번 세월호 참사는 큰 충격이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게 불발을 거두는 작업을 상당히 포기하면서 항구에는 적막감마저 맴돌고 있다. 동거처도, 서거처도, 팽목도 거주 주민들은 교통 불편을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침몰한 세월호의 기름이 진도군 조도면 해상 유출되면서 인근 양식장에 2차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백희준·임준희 수습기자 lotus@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131226-증-52297호

老안시려 노안교정

밝은광주안과 의원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내용 노안라식 / Kamra Inlay를 이용한 시술 / 다초점 인공 수정체 / 레스토렌즈

밝은광주안과 의원

사람+금융=광주새마을금고

37년의 역사와 전통으로
서민금융을 지켜온 광주새마을금고

정기에탁금 특별판매

1년 3.2%

돈이 모이는 비과세 금융상품
세금없는 비과세 최고 7,000만원
(출자금 1,000만원, 예·적금 3,000만원, 생계형 3,000만원)
광주새마을금고에 오시면 꿈과 미래가 보장됩니다.

MG 광주새마을금고

(구 양동시장 북개사가 새마을금고)
(구 광주유동 새마을금고)

대표 본 점:361-3515 양 동 지 점:362-6164
전화 각화지점:268-6163 풍암금호지점:651-6167

광주 광역시 서구 천변차로 246번길 3

혈당조절 때문에 걱정되시죠?

유인메디카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글리코엔 골드**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고시형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당의 흡수를 억제시켜 Glucose를 조절합니다

식후 2캡슐씩 하루 2번으로 혈당조절 OK!!
KISA **식후 혈당상승 억제제!**

- 식후혈당상승억제에도움을주어 혈당조절이 잘 되지않을때 혈당조절을 개선시켜줍니다.
-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주)유인메디카에서 "혈당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완성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전화주시면 책, 자료,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NAVER **백세생활건강** 을 검색하세요
1899-3975 H.P 010-3598-7080